

나는 거슬러 가고 싶다. 일상의 단면, 그 한 순간을 정지시켜 공예품을 만든 듯한 이즈음의 미술 작품들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나는 긴긴 시간을 실패처럼 둘둘 감아서 들고 가고 싶다. 나는 작품에 깃들인 시간을 자르지 않고 뭉치고 싶다. 나는 온갖 생필품들을 가득 짊어지고 이 동네 저 동네를 기웃거리는 보부상처럼 작품 하나마다 나의 서사를 탑재하고 싶다. 나는 점점 무거워지는 서사 꾸러미를 짊어지고 힘겹게 이 세상을 헤쳐 나아가고 싶다.

나는 문학과 지성사에서 10권으로 완간된 오승은의 <서유기>를 일 년 째 천천히 읽고 있다. 삼장법사 일행이 저승에 도착했으나 환생하지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을 구하러 천축국으로 가고 있다. 내가 아직 책의 마지막 부분을 다 읽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아직 서역에 도착하지 못했다. 어쩌면 그들은 영원히 도착하지 못할 것만 같다. 매순간 위험한 모험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서역을 다녀온 사람처럼 여유 있게 그들의 모험을 읽고 있다. 도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비를 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한 개의 고개를 넘을 때마다 중국식 판타지가 하나씩 공중에 흩뿌려진다. 판타지 속에는 요괴가 있다. 요괴는 용의 비늘이나 황금 갑옷을 입고 거창하게 나타나지만 삼장법사 일행의 격퇴를 받은 다음엔 초라한 동물로 사라진다. 마치 나의 지나간 분노나 불안의 찌꺼기 같다. 나는 <서유기>를 읽으면서 나의 '서유(Journey to the West)'를 추체험하고 있다. 나는 이번 전시회에서 나는 나의 <서유>를 독백하고자 한다. 나는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나의 대부분의 설치 작품들을 파기했다. 나는 서울에서의 새 작업 속에서 지나간 시간의 유령(요괴)들을 불러들이기도 하고 내동댕이치기도 했다. 그것은 마치 나의 내면의 서유기를 다시 읽는 것과 같았다.

삼장법사는 원숭이 일행을 몰고 다니지만 나는 검고 따뜻한 짐승 한 마리를 품고 다닌다. 이 짐승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발생해 있었을 어떤 에너지다. 나는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늘 이상한 괴리 현상 속에 있었다. 나는 바다처럼 광대한 미시건 호수나 허드슨강이 내려다보이는 거처에서 밤마다 가위에 눌렸고, 생리통에 시달렸다. 서울에서 온 한약을 먹으면 그 증세가 약해졌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파도처럼 아픔이 밀려왔다. 현관문 아래 거대한 가로수에는 까마귀들이 수십마리씩 떼지어 앉아 시끄럽게 내 미래의 죽음을 울어 주었다.

나는 마치 거울 속에 사는 여자와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낮에 스튜디오에서 친구들과 작업에 열중할 때는 잊었지만, 거울 속에선 외국인이라는 명찰을 단 조그만 아시아여자가 나타났다. 보는 것으로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내가 보는 서양, 그래서 동일시되어 버린 서양과 내 피부와 몸의 형상이 보여주는 이방이 충돌했다. 마치 오승은이라는 작가가 만들어낸 삼장법사 일행은 천축국으로 가고 있지만 작가는 명나라의 어느 골방에 앉아 글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나는 외국에 있고, 또 하나의 나는 거울 밖 어딘가 부모님 곁에 앉아 작품을 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눈을 감고 검은 거울 밖으로 멀리 가곤 했다.

나는 제일 먼저 그 먼 곳의 나를 불러오는 여신의 제단을 만들었다. 외로운 밤에 내가 만든 여신의 가슴에 달린 삼각뿔들이 먼 곳의 나를 향해 부우웅 소리를 내었다. 나는 내 외로움의 집적물들인 그 여신이 스스로 걸어다니고 노래하게 전기 장치를 했다(<My Shrine>). 제단에 불을

커면 나의 외로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외롭고 잔인한 예수(<The Selfish Jesus>)와 루이 14세 (<Louis XIV-Bodhisattva>), 혹은 표피가 없는 내장 여자(<The Intestine Woman>), 내 일기장을 맡아 온 몸을 장식한 '나방(<My Moth>)'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내 피부 껍질을 벗기기만 하면 보일 것 같은 나의 오만한 self였으며, 피부 안쪽 세계의 오만한 주인이었다. 나는 <Le Massacre de Jesus Egoi"ste>라는 이름의 주연을 베풀고, 포도주 분수에 서서 퍼포먼스에 참여자에게 세례를 주었고 내 몸인 거대한 가위로 인형의 머리를 잘라 주었다. 나는 아시아 여자의 외피 속에서 울고 있는 검고 따뜻한 짐승 한 마리를 자꾸만 꺼내어 보여 주었다.

나는 차가운 젤리 속을 천천히 유명하는 듯한 느낌, 혹은 거울 뒤편의 수은을 몸에 바른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몸을 저 먼 곳, 동양의 작은 곳에 두고 나는 투명한 젤리 속에서 시간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나는 엄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여러 나라 각 지방의 젤리 맛은 모두 달라. 풍피두센터 매점에서 파는 젤리는 시큼하고, 시카고 학교 매점에서 파는 젤리는 푸석거리. 설탕도 얼마나 두껍게 발라져 있다구, 서울에서 사먹었던 젤리는 플라스틱처럼 질겼어.'

(<Memememememememe Candle>) 나는 봄과 보임 사이, 안과 밖 사이, 신과 인간 사이, 서양과 동양 사이, 피부와 피부 아래를 맴돌았다. 피부와 피부 아래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줄 몰랐다. 나는 그렇게 두 존재로 갈라진 채 <Sk/in & Out>했다. in 에도 있었고, out 속에도 있었다. 혹은 그 어느 것에도 있지 않았다. 나는 있음을 창조하려고 서역으로 가는 나와 따뜻하고 검은 에너지 덩어리인, '없음'을 향해 가려는 나 사이에서 분열했다. 이방인으로서의 나와 본래의 나가 분열했다. 나는 분열 속에서 이 세상에 없을 것 같은 작은 생물 형상들을 창조해 큰 집적물을 제작했다. 나의 작은 손길들이 시간 속에서 큰 형상을 이뤄갔다. 나는 외로움과 분열의 작은 단위들을 모아 큰 덩어리를 제작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 거울의 앞면과 뒷면 사이, 피부와 내장 사이 어두운 그곳, 빙산과 빙산 사이, 깊이 흠이 파진 크레바스가 내 거쳐였다. 나는 그곳에서 땅에 머리를 박고 서 있는 나무를 만났다. 배가 고프면 얼른 손을 뻗쳐 입으로 밥(양분)을 가져가는 거꾸로 선 물구나무, 나는 그 나무의 뱃속과 파묻힌 머리에 환한 등을 달아 주었다. 그렇게 하다보니 세상의 모든 나무는 머리를 땅에 처박고, 그리하여 입과 코와 눈도 땅에 처박고 가랑이를 벌려 하늘에 몸을 흔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나무의 몸에 물고기와 열매를 매달아 주었다(<Swirling on Her Head>). 나는 한국에서 최초로 신화 속에 등장한 여자를 생각했다. 그 여자는 우리나라 건국 신화 속의 암컷이었다. 그녀는 고행을 통해 꿈에서 여자가 되었지만, 아들을 낳고나서 신화 속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자면 나처럼 먼 곳에서 온 이방인이었다. 나는 그 여자의 몸, 꿈의 형상에서 인간인 한 여자가 솟구쳐 오르는 모습을 작업했다. 그녀의 몸에서 피의 분수가 솟구치고 빛이 쏟아지게 했다. 그리고 그녀의 식물, 동물, 바다 생물 등등이 새겨진 피부는 그녀의 밖에 걸려 있게 했다. 피부와 분수 그녀 사이에 그녀의 존재가 있게 했다. 나는 관람자의 오감을 자극하고 싶었다. 빛과 소리와 순환하는 붉은 물, 분수의 모습으로(<Quira fountain>).

나는 서울에 돌아오자마자 시위 현장에 가 보았다. 그 때 나에게 강렬하게 새겨진 감각이 솟

불들보다 시위가 소강상태에 들어가는 시각, 사람들이 길거리 한가운데서 휴대용가스기기에 구워 먹는 오징어 타는 냄새였다. 말린 오징어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음식 재료다. 특히 구운 오징어 냄새는 시체 타는 냄새가 난다고 혐오한다. '해저2만리'에서 오징어는 처단해야할 괴물이다. 어떤 의미에서 공동체의 경계는 감각의 경계라 할 수 있다. 오징어냄새는 서양의 타자이며 abjection 이지만, 서울은 그 냄새로 서양의 이방인이었던 나를 환대했다. 오징어가 서울 사람들의 질긴 시간 근육처럼 느껴졌고, 곧 발전하는 우주선처럼 활기차게 느껴졌다. 나는 우주선과 근육, 그 둘을 다 가진 존재를 구상했다. 오징어는 심해에서 스스로 발광할 줄 아는 별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오징어는 오징어잡이 배에 매달린 집어등이라는 유혹에 이끌려 심해라는 자신의 존재 기반을 잃고, 혐오식품이자 기호 식품이 되었다. 오징어가 나에게 말했다. "내 몸의 발광세포가 심장 소리에 맞춰 두근두근 빛난다. 공중에서 거대한 빛 덩어리들이 쏟아진다. 나는 곧 구원받을 거야. 답답하고 무서운 차가운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거야. 나는 내 몸 속에 잔재하는 칠흑 같은 어둠을 모조리 뱉어버릴거야. 순간 날카로운 고통이가 나를 꿰뚫어. 아파. 쓰라림이 나를 빛 속으로 인도해. 승천하는 것에서는 냄새가 나." 나는 말린 오징어 다리들을 두른 몸을 가진 심해에서 이룩한 존재(<승천하는 것은 냄새가 난다 Everything Ascending to Heaven Smells Rotten>)와 스스로 발광하는, 우주선과 유사한 거대 오징어를 함께 배치해 나를 줄곧 거울 안 세상으로 이끈 검고 따뜻한 짐승같은 심해를 환기하고 싶기도 했다. (<물 속의 에밀레 Bell in the Water>) 엄마가 방향제를 분사하며 말했다. "네 작업실에서 썩는 냄새가 진동해."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까지 나 혹은 삼장법사 일행은 무엇을 얻으려고 '서유'했다가 돌아왔는가. 아마도 심해의 어두운 빛 속에 숨은 경전을 찾으려 했나보다. 나는 지금 어떻게 보면 없고, 어떻게 보면 있는 이 어둠 속에서 스스로 발광하는 생물의 눈빛 같은 것, 그 무늬 같은 것을 나는 얼핏 본 느낌이 든다.